

2017년 5월 19일, 성산읍 온평리 고유을 씨 덕, 송정희 조사.
고유을(여, 1924년생, 성산읍 온평리)

- 줄거리: 도깨비가 남편이 집에 없으면 나타나서 아내를 괴롭히는 통에 아내는 결국 그 집에서 못 살고 나왔다고 한다.

[제보자] 도깨비 잘 놀래로나네. 도깨비 구신 무신 집인 도깨빌 방제허젠 허민 몰대가리 헤다그네. 무신, 올렛담에 묻었저, 무시거 헛저. 그때덜은 막 골아났어게. 옛날엔 또 도깨비 구신을 하영 모셔나고. 집집마다 잇인딘 이 신산이러렌이. 방상이, 형제간에 혼 집이 시민 큰집이 시민, 다, 그 방상엔 다 헤사 허곡. 경 허고 옛날엔 그추룩 살아났주, 그추룩 사는다. 도깨비가이, 여자에 막 좋아라허곡.

[조사자] 으응.

[제보자] 그 도깨비 구신 모신 디가. 완전히 사름 행세를 헌덴. 사름 행세를 헤그네. 온평리 사름이 신산리 시집을 갖는다. 그디 막, 도깨비가 성덕인 집이 시집을 갖어. 시집을 가난, 그 도깨비엔 헌 구신이, 여자광만 막 좋아란 헌덴. 남자 엇이민 그 여자광 강 혼디 녹젠 행 살질 못허게 헌덴. 실진 아니라도이, 마음, 정신으로 경 헌 거라이.

꿈 보듯이 그추룩 행 헤불민. 아니 서방 초즈낙이 어디 가베영 엇인 땐 누웠이자 그 도깨비가 오랑 혼디 녹젠 허곡 허나네, 못 살 사름은 그 집이 태왕 살 사름은, 그걸 위행 그디서 살곡 못 살 사름은 시집 못 살앙 나오라비여.

시집 못 살안에, 나오라벳인다. 밤이사 술 주는 소리가 스르릉 스르릉 물 헤여그네 주전지로 영 질어가민게, 스르릉 스르릉 소리 나지 안 헤여? 어평사 그레 소릴 닻게 내어 오는지, 경 내운덴, 현실은 아닌디. 그추룩 허나네 기냥 못살안 나오란 시집 안 살앙 나오라 불명 헛인다.

- 핵심어 : 도깨비, 여자, 집, 온평리, 사름 행세, 도깨비, 신산리